

2034년 글로벌시장 규모 356억 弗 중독치료제 선점 ‘신약’ 개발 총력

인벤티지랩 치료제 ‘IVL3004’
임상1상서 시판약 보다 우위 확인

아피메즈 미국법인 ‘아피톡스’
골관절염 환자 임상3상 마무리

마약성 진통제, 알코올 등으로 인한 약물 중독이 국내외 보건 사회에서 화두가 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중독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산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선다.

1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은 국내 유일 1개월 지속형 약물중독 치료제 ‘IVL3004’을 개발하며 중독 치료의 가능성을 높인다.

IVL3004는 나트렉손 성분의 주사제로, 인벤티지랩이 독자 구축한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이 집약된 혁신 의약품이다. 임상 1상에서 동일 성분의 기존 시판 약 비비트를보다 우수한 차별적 우위가 확인됐다.

임상 1상 결과, IVL3004의 안전성, 내약성이 입증됐고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 사망, 치료 중단 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IVL3004 투여군에서 주사 부위 부작용 지속 기간이 3.8일 및 4.9일로 집계됐다. 이는 비비트를 투여군이 18.2일을 기록한 데 비해 현저히 짧은 기록으로 약물 안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환자 내약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IVL3004는 지속

방출 특성을 갖춰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비비트를 투여군(대조군) 대비 용량을 30% 줄인 IVL3004 300mg(저용량군)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약물 흡수도가 유지된 것도 특징이다.

또 초기 약물 과방출이 없는 우수한 약동학적 프로파일이 규명돼 충분한 전신 약물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벤티지랩은 글로벌 치료제와 경쟁 가능한 국산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공 치료제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 중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공중 보건 과제로 공공 치료제와 국가 주도의 시스템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IVL3004는 중독 치료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장기지속형 주사제인 만큼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재범 및 재발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향후 국가적 필요성과 연계해 글로벌 선도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과제를 수행해 IVL3004를 개발해 왔다.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기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코카인 등

으로 인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국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과제에 대해 미국 연방 연구 기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인스코비자회사아피메즈미국법인은 천연물 기반의 비마약성 치료제 ‘아피톡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미국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아피톡스’ 임상 3상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반 골관절염 환자에서 아피톡스 임상 3상을 마무리해 약물 경쟁력을 입증했고, 오는 2026년 1월에는 중증도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아피톡스 적응증은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다발성경화증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3상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상태다.

아피메즈 미국법인 측은 “최근 미국 FDA가 발표한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 개발 지침’에 적극 발맞춰 미국의약품 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SUPPORT Act(아편유사제 회복·치료 촉진을 목표로 한 법률) 규정의 일환으로 아편유사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에 신속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약물중독 치료 시장은 지난해 기준 200억 달러 규모이며 오는 2034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7.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 16일 인천 송도 셀트리온제약 연구소에서 벡톤디킨슨 아시아지역 제프리 첸 부사장(왼쪽부터),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대표, 제이슨 황 벡톤디킨슨 코리아 사장이 셀트리온제약과 벡톤디킨슨의 업무 협력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제약, 벡톤디킨슨과 파트너십

CMO 역량·고객 네트워크 결합

셀트리온제약은 지난 16일 글로벌 주사기 제조 및 공급사 벡톤디킨슨, 벡톤디킨슨 코리아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3사는 셀트리온제약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역량과 벡톤디킨슨의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가 결합하고 국내외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총전형 주사기 의약품 CMO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벡톤디킨슨이 운영하는 ‘CMO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사 요청에 적합한 CMO 기업을 추천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셀트리온제약이 구축한 생산 역량을 소개할 수 있다.

셀트리온제약은 사전총전형 주사기 의약품 CMO 사업을 본격화하며 청주 공장 증설에도 나섰다. 현재 청주공장의 사전총전형 주사기(PFS) 의약품 관련 생산시설은 연간 최대 1600만 시린지를 생산할 수 있다. 원료의약품(DS)조제부터 충전, 이물검사, 조립, 라벨링 및 포장에 이르는 전 공정을 수행한다. 가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주공장 내 4100평 여유 부지에 생산 설비를 확충, 향후 생산 규모는 현재 수준의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PFSCMO 사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셀트리온제약만의 차별화된 PFS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충치균 99.9% 억제 ‘1450 고불소 치약’

메디안, 치아 표면·손상치아 관리

아모레퍼시픽은 구강 전문 브랜드 메디안에서 신제품 ‘1450 고불소 치약’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메디안 1450 고불소 치약은 충치 예방 성분인 불소를 1450ppm의 고함량으로 함유해 충치균을 99.9% 억제한다. 또 ‘고불소 2X 코팅’ 기술을 적용해 거친 치아 표면과 손상 치아를 관리해 준다. 사용 후 잔여감을 줄여 상쾌함을 구현한 것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메디안 브랜드 재단장도

이뤄졌다. 새 디자인을 통해 ‘K덴탈케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메디안은 치석 치약과 고불소 치약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메디안 대표 제품인 치석 치약은 누적 판매량 3억 개 돌파, 의약품 수출실적 톱10 진입 등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정돈된 디자인과 진화된 비주얼 아이덴티티에 글로벌 도약 의지를 담았다”며 “글로벌 소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망막색소변성증 치료물질 도입

美 오큐젠과 ‘OCU400’ 국내 독점
임상3상 진입, 내년 FDA 신청 목표

광동제약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 오큐젠과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 후보물질 ‘OCU400’의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OCU400은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기전을 갖췄고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오큐젠은 오는 2026년 미

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요인으로 망막이 점진적으로 손상돼 시야가 좁아지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광동제약은 임상 결과, 품목허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안과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다. 기존 파이프라인으로 노안 치료제 후보물질 ‘브리모콜’, 소아근시 신약 후보물질 ‘NVK002’, 안과 희귀질환 치료제 ‘락손’ 등을 보유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망막색소변성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와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HLB제넥스, 헬스케어 브랜드 ‘소디온’ 공개

에스오디 등 3종 재단장

HLB제넥스는 헬스케어 브랜드 ‘소디온’을 공개하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본격 확장한다고 17일 밝혔다.

HLB제넥스는 소디온을 통해 ‘내 몸의 스위치를 켜다’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 제품 에스오디(SOD), 스포아프로바이오틱스, 갈락토올리고 프리바이오틱스 등 3종을 재단장한다.

HLB제넥스는 맞춤형 효소 및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으로, 효소 생산의 전 주기를 다루는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소디온 ‘에스오디(SOD)’의 경우, 항산화 효소로 알려진 수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SOD)를 핵심 성분으로 처방한 제품이다. 이번에는 제품 포장에 친환경 요소가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가 인증한 종이 박스, 친환경 콩기름 잉크 등을 적용했다.



김의중 HLB제넥스대표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기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브랜드 가치를 새롭

게 정립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제품 혁신에 집중하며 기업간거래(B2B)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다이소물 평점 4.9점 기록

애경산업은 클렌징 전문 브랜드 포인트의 ‘딥 클린 쿵 마스크라 리무버’가 등

완관 행진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인트 딥 클린 쿵 마스크라 리무버는 지난 6월 국내 군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처음 선보여졌다. 이후 공개 3주 만에 다이소물 입고 물량이 품절됐고 지난 9월 초에는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공급 물량 5만 개가 모두 소진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주차 기준 다이소물에서 제품 평점은 5점 만점에 4.9점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품은 속눈썹 전용 제품이다. 특히 흘러내리지 않는 젤 제형이 속눈썹 뿌리에 밀착되면서 메이크업을 말끔하게 제거해 준다. 제품에 빗이 내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영양 및 보습 성분도 함께 처방해 제품력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고 안 자극 대체 시험, 피부 자극 테스트 등을 완료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단단한 제품 기능성, 합리적인 가격 등에 힘입어 1020 잘파세대를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게 됐다”며 “추가 물량 확보에 빠르게 대응해 현재는 2차 물량이 입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